

육아정책 소식

교육부 ‘처음학교로’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에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되었고, 등록 기간 내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한다고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에 위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은 국공립 4,893개(100%), 사립 3,651개(99.1%)로 전체 8,544개원(99.6%)으로 집계되었다. 교육부는 공정한 입학과정을 위해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과 조례를 재정하여, 올해 대상 유치원의 대부분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학부모는 11월 1일부터 회원가입 및 유치원별 모집요강 검색이 가능하고,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우선모집 접수,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일반모집 접수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정책에 협조해 준 모든 국·공·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를 유아교육 신뢰회복의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이로 행복해진 아동, 놀이 사업성과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8일(금) 10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나눔관(서울 중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과 함께 “놀이가 바꾼 아동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2019년 놀 권리 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난 5년간 놀 권리 보장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도부터 아동 놀이 공간을 신축하거나 개선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사업과 함께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도시 지역에서는 놀이터를 아동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과후 아동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특화형 놀이터* 및 지역아동센터** 신축을, 학교에서는 놀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교내에 아동의견이 반영된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주 1회 40분 이상의 자유놀이시간을 갖도록 교육청과의 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는 본 사업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과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네 가지의 놀이사업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 사업을 통해 아동 방임 시간이 줄어들고, 아동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성장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 기업인 코오롱 CSR 사무국의 신은주 부장과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의 김정식 사무 역시 후원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기대하는 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오늘 논의한 결과는 향후 정부가 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간이조리대 등이 갖춰진 실내 돌봄공간이 있고 보호인력이 상주하는 등 안전한 돌봄과 놀이가 공존하는 농어촌지역 특화 놀이 공간, '15년 전북 완주 신기방기 놀이터 등 '19년까지 12개소 지원
- ** 지역아동센터에 실내외 놀이요소를 더하여 아동들이 친구들과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 '16년 강원 영월군 이든샘 등 '19년까지 16개소 지원
- *** 시설개선행, 놀이권옹호 진입형, 아동권리적 운영형, 소통·공동체 기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일어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위반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시 시행할뿐만 아니라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내용 〉	
전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해 실시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19.12~)
신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선·운영('19.11~) • 신고된 제공기관에 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동시 실시
아동학대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고시 개정('19.12월) 및 시행('20.1월)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 • 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 강화('19.12~)
교육과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전면 개편할 예정('20년)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 및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11월 13일(수)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쉬운 접근 및 등록을 위해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이 개설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원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구인 정보를 등록하여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구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SNS, 홍보책자 배포 및 메일, 문자 발송,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 등의 다양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근무시간)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보수) 월 급여 100만 2000원 및 전담수당 월 11만원 .

**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부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나눔정보 > 인력뱅크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사업기관과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제주도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여, 2019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사업의 질 개선과 수행기관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였다. 본 연수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와 이레사 페라라 토크미 이주여성 자조단체 대표가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지난 4월에 발표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 월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자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혜 아동이 지난해 8.3만명에서 1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월 15만원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59호(‘20년안 189호) 지원하고, 입주기간 역시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자녀들의 교육환경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 혹은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미혼모자의 질병 발생시 의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19.6.19. 시행))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혼모시설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02개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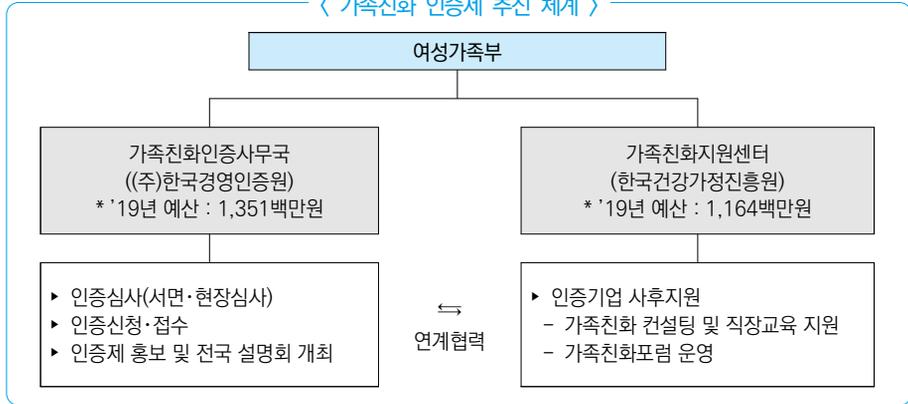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업수행 기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가 한부모 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후 직장분위기 좋아지고 업무생산성 높아졌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소기업 가족친화 확산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가족친화경영 실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경영인인증원이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인증지원을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업 및 기관은 2008년도 14개사에서 2016년 14개사로, 그리고 2018년도에는 3,328개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도까지 5,300개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족친화 인증제 추진 체계 〉



하지공업주식회사의 안태상 대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나서 상담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을 거치며, 실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장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진성 한국표준협회 인증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및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김태영 한국소비자경영협의회 대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각 기업에 맞는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변화대응본부장은 현재 실행 중인 지역 가족친화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동 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가족친화인증 전·후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